

1권

아이

선생님
안녕

엄마
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발간사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동시에 일선 보육현장에서 아동들을 위하여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도 자괴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육교사들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아동들을 돌봐야 할 선생님들의 자세가 움츠러듦에 따라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보육을 복돋아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절실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최초로 발간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소명의식을, 또 다른 한편에는 사랑을 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올바르게 돌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께 이 안내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일선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곳곳에 만화를 삽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수, 현장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보육현장의 상황은 존각을 다투며 급변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도 다양각색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첫걸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앞으로 주실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를 발할 자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과 최초의 돌봄 안내서 발간이라는 정신적인 부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을 다하여 애써 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보육현장에서 아동들의 올바른 돌봄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어린이집과 부모님들 간에 공감대를 키워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1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 들어가며

I.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 1

1. 영유아 권리 3
2.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필요성과 특징 5
3.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 7
4.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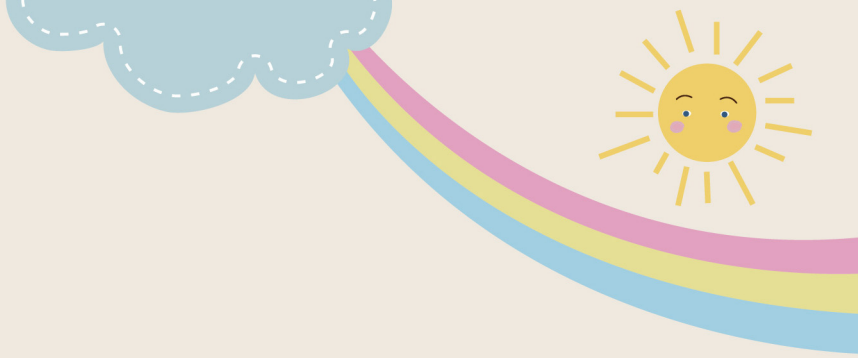
II. 영유아 이해하기 • 15

1. 만 0세 영아의 발달 17
2. 만 1세 영아의 발달 19
3. 만 2세 영아의 발달 22
4. 만 3세 유아의 발달 24
5. 만 4세 유아의 발달 25
6. 만 5세 유아의 발달 27

III.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이해하기 • 31

1.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33
2.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과정 38
3.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의사소통 48





IV. 교사 내면의 힘 기르기 • 51

- 1. 교사의 스트레스 조절하기 53
- 2. 교사의 분노 조절하기 58
- 3. 교사의 우울 다루기 62
-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66

V.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 69

- 1. 부모와 신뢰 만들기 71
- 2. 부모와 장기적 목표 공유 72
- 3. 이해를 위한 자료 준비 72
- 4.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72
- 5. 효과적으로 부모와 소통하기 74
- 6. 부모와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방법 76
- 7.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에서 가정과 협력하기 81

부 록 • 85

- 1.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 절차 87
- 2. 아동학대 유형 90
- 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93

참고문헌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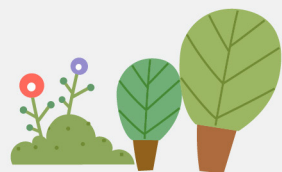
들어가며

이 책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지도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이다.

오래 전부터 보육현장에서는 '훈육'이라는 개념을 들어 영유아를 지도해왔다. 과거의 훈육은 교사가 원하는 대로 영유아가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훈육의 개념은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하여 존중하는 가운데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많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저마다 영유아를 사랑으로 보육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훈육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는 훈육방식들이 때로는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거나 영유아권리를 침해하며, 심한 경우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보육의 기본 요소인 영유아의 존중을 위해 교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교사들이 가진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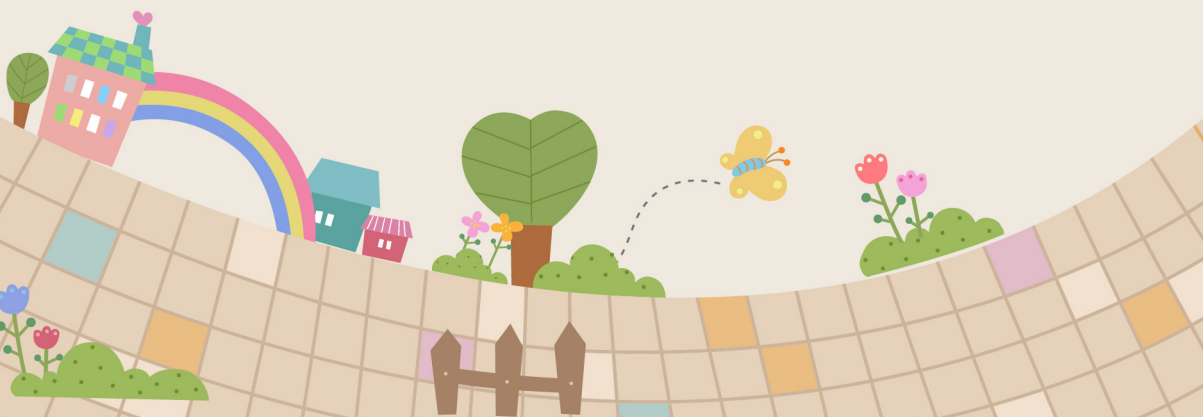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잘 이해하게 되고 공감적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육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현장이 교사에게도 영유아에게도 행복한 보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I.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1. 영유아 권리
2.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필요성과 특징
3.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
4.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영유아는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어린이집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란 무엇일까?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장에서는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유아 권리

전통적으로는 영유아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며 어른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보육교사인 나는 영유아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영유아는 매우 특별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 영유아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 영유아기는 자기이해 능력 및 타인과 주위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발달시켜 나아가는 시기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학습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이다.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는 영유아 역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자이며,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영유아가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유아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영유아가 단순히 불완전한 존재로서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며, 개별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비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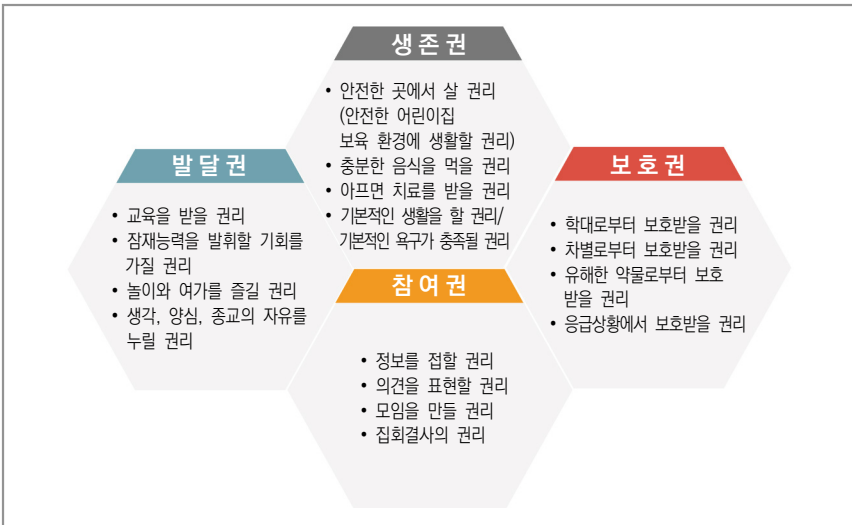


그림 1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영유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임을 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다.

- 아누슈 코르차의 <아이들> 중에서 -





2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필요성과 특징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이 되어야 한다.

영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기초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김숙자·김현정, 2008)이다. 따라서 영유아시기에 존중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생활하는 영유아는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권리 존중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며,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하루 종일 영유아를 보살피는 교사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존중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점차 확대되어 영유아 권리 존중의 기반이 형성된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은 영유아와 교사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기반이 되며, 이는 영유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 권리에 대해 민감한 교사의 태도가 발휘된다.

영유아의 권리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교사는 영유아의 관심과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다. 이에 영유아는 교사로부터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켜 간다.

둘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가 삶의 주체자로서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의사표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제공됨으로써 영유아는 능동적인 힘과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 교사는 그 어떤 역할보다도 영유아를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여 주도권을 주고 돕는 자의 역할을 선택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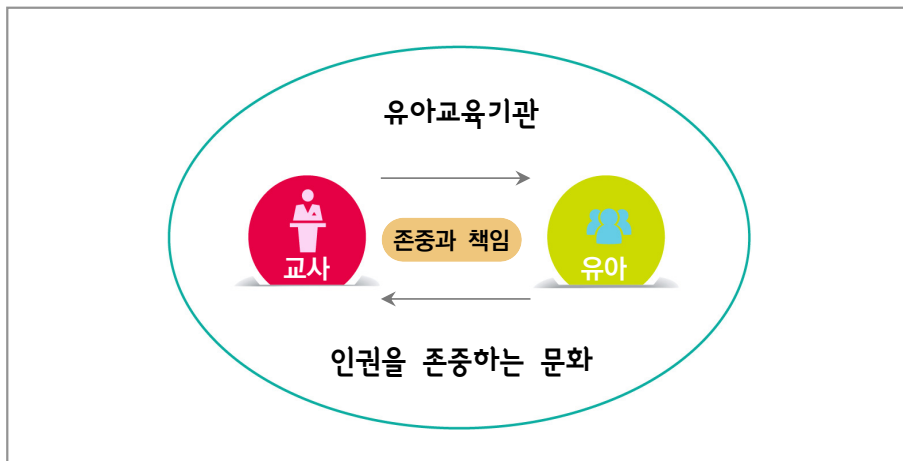


영유아의 주도성은 발달하게 된다.

셋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영유아는 자신이 신뢰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다음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11)가 개발한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다음 그림은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그림 2 ▮ 유아교육기관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구성¹⁾

영유아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성인으로부터 권리를 존중받고 학습하게 되므로 영유아 주변의 성인인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 동안 점차 어린이집 생활 비중이 늘어나게 된 현 사회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보다 더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교사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3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²⁾

감수성이란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란, 교사가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발달·갈등·책임·선택·참여와 관련된 어려움을 영유아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또한, 영유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감능력도 감수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는 민감함, 공감능력 등 감수성을 발휘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제시된 사례를 통해 영유아 권리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자.



사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먹으면 안돼요?”

점심 식사를 위해 교사에게 점심 배식을 받은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때 철이는 다른 친구의 이름이 붙은 자리에 슬그머니 가서 앉는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는다. 이때 그 자리의 주인인 영이가 식판을 들고 자기 자리에 온다.

영이 :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최철이! 여긴 내 자리야.

네 자리가 아니야.

철이 : (못 들은 척하고 밥만 먹는다)

영이 : 야! 비켜.

철이 : 좀 앉으면 안 돼?

영이 : 응, 안 돼! 선생님이 나 앉으라고 여기, 내 이름을 붙여주셨잖아. 빨리 비켜 줘.

철이 : (꿈적하지 않고 점심을 먹고 있다)

영이 : 선생님! 철이가 내 자리 안 비켜 줘요.

교사 : 철이야! 거긴 네 자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하늘 반에서는

자기 이름이 붙여진 곳에서 밥 먹기로 약속도 했잖아요.

철이 : 오늘은 이 자리에서 먹으면 안 돼요? 난 여기가 좋은데...

2)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4). 아동학대를 넘어 영유아 권리존중으로.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철수 옆에서 같이 먹고 싶어요.

교사 : 안돼요. 네 자리가 아니지. 선생님이 네 이름 붙인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우리 철이가 착하지?

철이 : (작은 목소리로) 치, 선생님 마음대로야. 난 철수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식판을 들고 자기 이름이 붙여진 자리로 가서 앉는다)

* 이 책에 등장하는 영유아의 이름은 교사의 편견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원아들 중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생각해 봅시다

- 이 상황을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
-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 영유아가 같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분쟁이 생길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런 상황에서 연령에 따라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알아봅시다

① 영유아가 자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적합하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18개월 ~ 만 3세)는 영유아의 자율성과 수치심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이때 성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영유아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즉, 교사의 분별력 있는 도움과 격려는 자율성을 키우게 되지만, 부적절한 도움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를 탐색하면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은 독립심과 존중감을 기르는데 기초가 된다. 이런 과정들은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발달권 및 참여권의 의미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보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영유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어린이는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어





른은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교실에서는 영유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영유아는 주체적인 존재이므로 영유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영유아들 대부분은 선택과 책임감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일상 속에서 성인들이 영유아들을 위해 미리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평소에 영유아들이 선택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되면 영유아들이 내린 결정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가 정해진 자리보다는 영유아들이 스스로 정한 자리가 영유아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

③ 자리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영유아가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영유아의 긍정적 자존감은 교사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생긴다. 또한 긍정적 자존감은 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할 때 생긴다.

예를 들면, 영유아들에게 보육활동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래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유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긍정적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들은 자신들이 어린이집에서 소중하게 대우받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은 분쟁 때문에 생겼던 분노가 진정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영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교사가 개입하여 보여주었던 문제 해결 과정을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되면서 영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유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다면 학기 초에 나타나는 갈등의 종류나 횟수,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은 영유아를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며,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 생활지도의 주요한 지침이다.





영유아에게 언제 선택권을 주어야 할까?

A.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나 위험한 것에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해서 교사가 불편하다거나,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영유아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 첫 시작은 서툴고, 시끄럽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영유아들이 선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란과 시간은 단축되고 보육실은 점차 질서 있는 분위기가 되어 갈 것이다. 교사가 영유아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회를 준만큼 영유아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렵다고 해서 쉽게 영유아의 선택권을 없애기보다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활동성 강한 영유아들이 같이 앉아 심한 장난을 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교사가 그 사이에 앉아 식사를 함으로써 안전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

어린이집에서는 물리적 환경, 운영체계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지만 영유아에게는 보육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를 표현할 뿐 아니라 교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 제시된 사례를 통해 영유아와 교사의 관계를 살펴보자.

만 2세반 철이는 통합반 보육실에 들어왔다. 시간이 늦어 통합 교실에는 만 1세 동생 정이와 같은 반 친구 영이 밖에 없다. 철이는 미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영이를 쫓아 자기도 붕붕이를 타고 보육실을 돌아다니며 논다. 그러던 중 철이가 영이의 자동차 앞부분에 자기 자동차를 들이대며 앞쪽으로 밀치기를 한다. “야~ 야~ 저리 가”라고 말한다. 3~4회 정도 세게 부딪치지는 않지만 밀치기를 한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교사는 이 상황을 보고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빨리 개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간다. “철이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렇게 밀치면 어떻게 해? 영이한테 ‘미안!’하고 사과하자. 그리고 너는 저쪽 쌓기 놀이 쪽에서 타자”





1) 전체적 맥락에서 놀이 상황을 민감하게 보았는가?

영유아는 언어적인 표현보다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이 더 자유롭다. 철이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놀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영이밖에 없었던 철이는 영이와 놀고 싶다는 욕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자동차를 밀치는 행동이 두 영아의 상호작용이라거나 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 행동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싸움으로 번질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 서로 즐겁게 상호작용할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2) 주도권은 꼭 교사가 가져야 하는가?

영유아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사인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유아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유아는 세상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할 때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교사는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영유아는 배워야 한다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격적인 존중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교사라면 당연히 영유아를 존중하고 영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믿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교사는 영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자신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자기 통제력과 힘을 믿는 교사라면 영유아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3) 공감적인 배려가 있는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보육 일과는 매우 지치고 힘들다. 때로는 평가나 문서로 인해 진정한 보육의 본질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일과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긴장감을 유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의 입장에서라도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사와의 온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영유아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교사가 만약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철이의 감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읽어주었을 것이다. 철이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안하는 선생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며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선생님에게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현장 만들기

- ▶ 보육교사의 시각과 감수성 : 영유아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민감하게 바라본다.
- ▶ 보육교사의 태도 :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와 소통하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한다.





유아권리 인식 간편 진단³⁾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아동권리 인식 지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연번	아동권리 인식 내용	예	아니오
1	유아는 어쩔 줄 모르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유아는 부모와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 한, 부모와 함께 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3	유아는 필요할 때 누군가 보살펴주고 유아의 입장에 서서 말해줄 수 있다.		
4	유아는 잘못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6	유아는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유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8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유아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한다.		
9	유아에게 옷, 음식, 살 곳이 주어져야 한다.		
10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1	유아는 자신의 종교, 언어, 피부색, 종족과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12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된다.		
13	유아는 좋은 친구를 사귄 기회를 가져야 한다.		
14	유아는 놀이를 즐기고 상상을 할 수 있다.		
15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할 수 있다.		
16	유아는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종족, 신분을 존중할 줄 안다.		
17	유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 계발할 수 있다.		
18	유아는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즉시 도움을 받는다.		
19	유아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	유아는 태어나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름을 갖는다.		

3)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연번	아동권리 인식 내용	예	아니오
21	유아는 자신만의 시간과 방해 받지않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		
22	유아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23	유아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돈으로 살 수 있다.		
24	유아는 자기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25	유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26	유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27	유아는 자기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다.		
28	유아는 종교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29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경청을 받는다.		
30	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31	유아는 자신을 진정 생각해주는 어른에게 관심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32	유아는 위험하거나 아동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3	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고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34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35	유아는 공부할 장소를 가져야 한다.		
36	유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7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		
38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다.		
39	유아는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	유아는 자신의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Ⅱ.

영유아 이해하기

1. 만 0세 영아의 발달
2. 만 1세 영아의 발달
3. 만 2세 영아의 발달
4. 만 3세 유아의 발달
5. 만 4세 유아의 발달
6. 만 5세 유아의 발달



II

영유아 이해하기



장시간 여러 영유아를 보육할 때 교사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 부딪힌다. 이 때 교사의 영유아 전발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기술은 보육교사의 결정적인 능력이며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장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만 0세 영아의 발달

애정 어린 돌봄을 통한 생리적 욕구 충족이 우선한다.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의 변화가 빠르고 가소성이 크다. 특히 0세 영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영아의 안위는 돌보는 사람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영아의 양육 책임자인 부모나 교사는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며 친절한 반응으로, 영아의 욕구를 수용하고 충족시켜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영아가 자신의 불편함, 불쾌함, 불 만족감을 찡얼거림, 얼굴표정, 울음 등으로 표현하였을 때, 대처능력과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신속히 해결해주지 않으면, 생리적인 불충족감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잦은 스트레스반응과 혼란스러움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질을 존중하는 질 높은 상호성 경험이 모든 발달에 기초가 된다.

개별적인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영아들은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두려워하는 기질 등의 기질적 성향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영아를 돌보는 교사와 부모는 각기 다른 영아의 기질적 요구에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 또한 영아와 교사의 정서적 유대감 증진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아의 행복감을 높여 영아의 건강한 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0세 영아는 다른 연령의 영유아에 비해 수면의 양이 많고, 쿠잉이나 웅얼이, 한 단어 말하기 등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성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성인의 주도적 역할이 크다. 0세 영아의 울음, 손짓, 접촉의 요구나 한 번의 웅얼이 발화에도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며 대화를 하듯 응답을 해주는 상호성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적 기초가 된다. 영아의 의사표시에 대한 교사의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교사와 영아의 질 높은 상호성의 경험은 영아가 어른이 응시하는 방향을 보고 스스로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는 능력인 공동주의의 발달을 촉진시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낮가림과 분리불안은 애착형성 과정의 주요 현상이지 문제가 아니다.

0세 영아의 가장 필수적인 발달 과업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애착형성이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정서적 유대감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관계의 양상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력과 사회적 규범 인식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후 6~7개월 전후로 영아가 주 양육자 이외의 사람에게 보이는 부정적 정서인 낮가림은 주 양육자에 대해 알게 된 결과이며, 주 양육자와의 친밀함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단일 대상과 보낼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 크다.

주 양육자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감은 12~13개월 전후로 강해진다. 게다가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은 영아에게 매우 공포스





러운 상황이므로 많이 울고 강하게 온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문제로 삼지 말아야 하며, 교사는 영아의 공포와 불안감을 수용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와의 애착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나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분리불안은 0~1세 영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연령의 영유아들이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 있으면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일 때에는 항상 면밀한 관찰과 민감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때는 주 양육자인 보호자와 교사와의 영아가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만 1세 영아의 발달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영아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자율성이 발달하게 된다. 영아의 자율성 발달은 새로운 것을 탐색해보려고 하는 욕구로 표현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며 감각적으로 환경을 경험하다가, 대·소 근육 및 감각 발달을 토대로 감각 탐색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많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같은 종류의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탐색을 방해받으면 물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다.

영아는 입으로 주변 사물을 조사하고 탐색하기 때문에 이 시기 영아의 무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친구를 무는 일이 있게 되면 교사는 굉장히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시기의 무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해하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근질근질해서 물기도 하고,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치아발육기나 깨물어도 다치지 않는 깨끗한 놀잇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아직 언어로 자신의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아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너도 한번 물려볼래?”라는 식으로 같이 무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귀엽다고 장난처럼 무는 흉내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무는 행동은 모방이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린 영아와 다른 영아들에게도 무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로의 자극을 주고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을 함께 바라본다.

상호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교사와 영아의 상호성은 교사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상호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교사와 영아는 여러 상황에서 서로의 단서와 신호, 그리고 특수한 행동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영아는 주변의 교사와 친구들과 상호성을 즐기기 위해 공동주의를 하려 한다. 공동주의란 다른 사람이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집중하는 것을 타인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적극적 상호작용 시도로서, 특정 대상을 타인과 함께 마음속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정윤경·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 2005).

영아는 응시하기, 가리키기, 보이기, 주기 등의 행동으로 교사의 주의를 요구하며 공동 주의를 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을 하려는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조율하면서 정서를 공감해주면 영아의 정서 표현과 정서 인식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아의 울음은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아들은 주로 울음으로 자신의 욕구





와 감정을 드러낸다. 영아에게 이유 없는 울음은 없다. 젖은 기저귀나 배고픔과 같은 불편함이나 배앓이와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울기도 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같이 놀고 싶어서 울기도 한다. 때로는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울음도 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여 신속하고 따뜻하게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우는 것이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영아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파악된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해주어 표현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기를 책임지며 돌보는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한다.

애착은 영아기의 발달 과업이다. 영아는 생의 초기에 생존을 위해 자신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애착 행동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영아의 욕구를 해결해 주며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게 해주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이다.

영아들은 생물학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강렬히 가지고 있다. 상대방과 자신이 유대감을 갖게 되면 영아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탐색의 욕구가 발현되어 인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애착을 형성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의 전반적 영역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좀 더 유능해진다. 적응은 애착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6개월을 전후해서 주 양육자에 대한 강한 애착은 낮가림으로 나타나고, 첫돌을 전후로 분리 불안이 심해진다. 낮가림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친숙한 대상과의 분리로 나타나는 불안 현상이 분리불안이다.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시기가 애착형성의 역동성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낮가림과 분리불안이 지속되는 영아기의 교사와 애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낮가림이나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분리불안으로 영아들은 계속 울거나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울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는 이것을 이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애착형성 단계는 동일한 연령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에 필요한 기간은 영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적응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울지 않는다고 해서, 놀이에 참여한다고 해서, 선생님과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여 적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영아에게 적응은 어려운 과업이며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긴 과정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 영아들은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교사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해내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며,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을 제공하여 양육자와 양육자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로 둔감하고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영아는 불신감을 갖게 된다.

3 만 2세 영아의 발달

자아인식과 자율성 발달로 주변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한다.

2세 영아기는 자아개념의 형성과 자율성의 출현으로 영아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늘어난다. 특히, 2세를 전후하여 자율성이 출현하는데 “안 해.”, “싫어.”, “내거야.”, “내가할래” 등의 말로 시작된다.

2세 영아의 자율성 표현 행동은 강한 자기주장과 고집스러움, 잦은 기분 변화와 변덕스러움, 격렬한 정서표현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아의 행동은 다루기 어렵고, 양육자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주 문제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2세 영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시도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환경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때 이를 방해하면 심하게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데, 이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어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교사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해주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영아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늘어나고 전능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율성이 출현한다. “내가 할래.”, ‘내거야.’ 와 같은 말을 주로 하며, 다른 친구들과 물건을 나누어 쓰기 어려운 발달단계이다.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은





문제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루기 어렵고 교사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줄 수 있다.

떼쓰기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영아는 만 2세부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 즉, 만 2세 때부터는 ‘나’라는 개념이 발달되면서 자신과 친구의 것을 구별하는데 신경을 쓰게 된다. 영아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만 1~2세의 영아는 다른 영아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동일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다른 영아의 장난감을 빼앗기 위해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

영아기에 “이 놀잇감은 내거야.”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상호작용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자기 것을 독점하고 소유하려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다른 영아를 나와 별개의 존재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아직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누어 쓰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이 무조건 공유하기를 강요한다면, 영아는 더욱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무관심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친구와 나누어 써야지. 혼자 쓰는 건 좋지 않아.”라고 하는 표현은 영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발달을 감안한다면 영아반의 놀잇감은 유아반보다 한 종류의 수를 많이 제공하여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아들도 공유가 힘들 수 있는데,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관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종종 공유란 무언가를 영원히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유아에게 있어 관대함은 준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 점차 늘어가게 된다.

“빌려 줄래”라는 말은 다른 친구가 즉시 빌려주지 않게 되면, 화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친구도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4 만 3세 유아의 발달

자기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혼자서 끝까지 해보고 싶어 한다.

만 3세로 들어선 유아들은 혼자 식사하기,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며 자율성이 발달한다. 하지만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유아는 성인의 간섭에 반항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아기는 자기주장과 경쟁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때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수용되고 인정받는 사회적 환경이라면 자신감에 찬 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비난을 받거나 실패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기주장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우주만물은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배려적 행동은 어렵다.

유아는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유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아들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

자기중심성은 유아들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유아가 이기적이거나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친구와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서로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보도록 영유아들을 돕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 문제 상황에 대한 인형극, 관련 동화책 등을 활용해볼 수 있다.





자아감이 발달하고 규범을 알게 되면서 도덕적 판단을 시작한다.

자아감이 발달하고 규범 이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긍심이나 수치심 같은 2차정서가 분화된다.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능력 또한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덜 표현하거나 숨길 수 있지만 아직은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유아기 아이들은 발달상 자기중심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이다. 그래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바람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보일 수 있다.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희망사항은 마치 상상처럼 현실세계로 꾸며지거나 보태어질 수 있다. 유아의 거짓말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거짓말이 유아의 내면의 어떤 점을 드러내는 것인지 잘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5 만 4세 유아의 발달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론이 발달한다.

유아기로 들어서면서 만 4세 유아들은 점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이입하고 추론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다면, 이 시기 유아들은 그림책 속의 주인공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예측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가작놀이(역할놀이) 등의 경험이 많을 때 더욱 발달되게 되므로, 교사는 해당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격려하고 이러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원하는 장난감을 가질 수 없거나 하고 싶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좌절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견디기 힘들어하는 영아에 비해 만 4세 유아들은 좌절에 대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및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게 되고, 좌절을 참았을 때의 더 큰 보상을 생각하게 되면서 유아 스스로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어린이집의 적응을 돕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당장의 충동을 절제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해 냈을 때 아낌없는 격려를 해줘야 할 것이다.

유아기에는 자기 통제력이 발달하는데,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기부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특히 발달에 적합한 행동지도를 통해 집단생활에 필요한 차례 지키기와 규칙 지키기 등의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규범과 약속의 의미와 기능을 어겼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알게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에 관한 도덕적 가치기준인 ‘양심’이 발달된다.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양심이 발달하게 되면 아동기에 이르러 양심에 따라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인 도덕성으로 발전된다.

이 시기 유아들은 양심을 위반하게 되면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생길 수 있게 되며, 양심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 등의 방어기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친 사회적인 형식적 행동을 연습하고 적절히 활용한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긴 하지만, 나누고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자기중심성에서 점점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 4세 유아들은 친 사회적 기술이 나타난다.

이 시기 유아에게 나타나는 친 사회적 기술은 똑같이 나누어 갖기, 역할을 정해서





협동놀이하기, 그림책 주인공이나 친구에게 감정이입하기 등이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우려고 행동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시도해보고, 칭찬이 따르면 잘 습득될 수 있다. 넘어져 다친 친구를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나누어 함께 놀이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와의 놀이를 좋아하지만 갈등 해결의 기술은 미흡하다.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 “나도 같이 놀아도 되니?”라고 물으면 종종 거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물음은 “안 돼”라고 말할 힘을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수용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유아가 놀이에 끼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유가 있으며, 교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놀이 상황에서 맡는 역할이 주로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는 전략 중 하나는 단순히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 옆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는 먼저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놀이가 발달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놀이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유아기에도 혼자놀이를 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6 만 5세 유아의 발달

성기와 성역할 등의 성적 관심이 많아지며, 동성친구와 강한 일체감을 가진다.

유아기의 성 정체성은 교사나 부모의 태도에 따라 유아의 성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성기를 손으로 만져보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는 자위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성기와 남자다움, 여자다움, 아기의 출생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교사나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질책하는





것은 성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한다. 유아는 놀이친구를 선택할 때 놀이의 형태에 따르기도 하지만 성을 근거하여 동성의 놀이친구를 선택하고, 동성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게 된다. 또한 자신과 같은 성과 함께 놀이하며 성역할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특별히 선호하는 친구가 생기면서 우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유아는 또래집단에서 가정과는 다른 수평적 대상인 또래들과 관계를 맺어 가며 서로 사회성을 키워간다. 협상과 타협의 기술을 학습할 기회도 갖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간다.

또래가 사회적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래들의 호의적·비호의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행동은 강화·유지하고 부정적 행동은 제거해 간다.

특별히 선호하는 친구가 생기며, 그 친구와 동조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를 자신도 좋아하고, 친구가 즐겨 사용하는 색도 따라서 좋아진다.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도 많고 크게 느낀다.

소속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고의적인 방해 행동을 한다.

학급에 대한 소속감으로 집단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만 5세 유아는 자신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 집단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높은 연령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보다 의젓하게 행동해야 하며, 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거나 집단 내의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해보려는 욕구로 때때로 언어적으로 배타적인 공격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 행동을 하기도 한다.

언어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고, 신체적 공격성은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또래와 놀고





싶는데 끼지 못할 경우, 신체나 언어, 물건을 사용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유아기에는 공격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나 공격성의 강도가 클 경우 방치했을 때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은 성인이 유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나 분배의 방식을 제시하고, 유아의 만족 지연 능력이 생기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지 않게 되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 대신 점차 언어적 공격성과 비물리적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되어 공격성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는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반면, 고자질하기, 놀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한다. 유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한다.

유아가 억압된 정서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동적인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격적인 행동 대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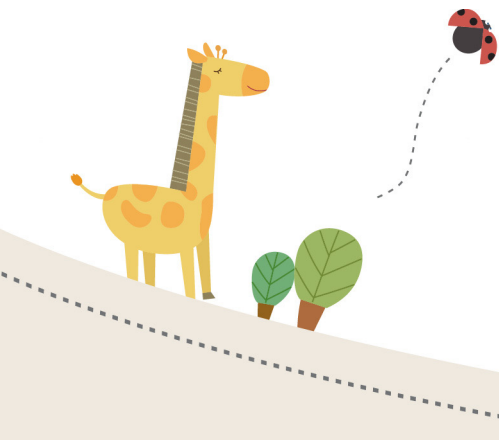
공평함에 대해 예민해지며, 친구의 요구와 기여 정도를 고려한다.

유아가 만 3~5세가 되면 공평한 것에 관심이 많아진다. 어떤 물건이나 기회를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공평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분배를 시도하게 된다. 유아에게 친구의 특별한 요구를 설명하면 배려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공평함이라고 여길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친구는 먼저 하게 해주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여기고 친구가 가지고 온 재활용품은 먼저 사용하거나 하나 더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좀 더 성장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거나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좀 더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며 다소 진보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 교사의 기대를 영유아들의 능력에 맞추면 잠재적인 훈육문제를 피할 수 있다.
- ▶ 우리는 영유아들이 배우는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영유아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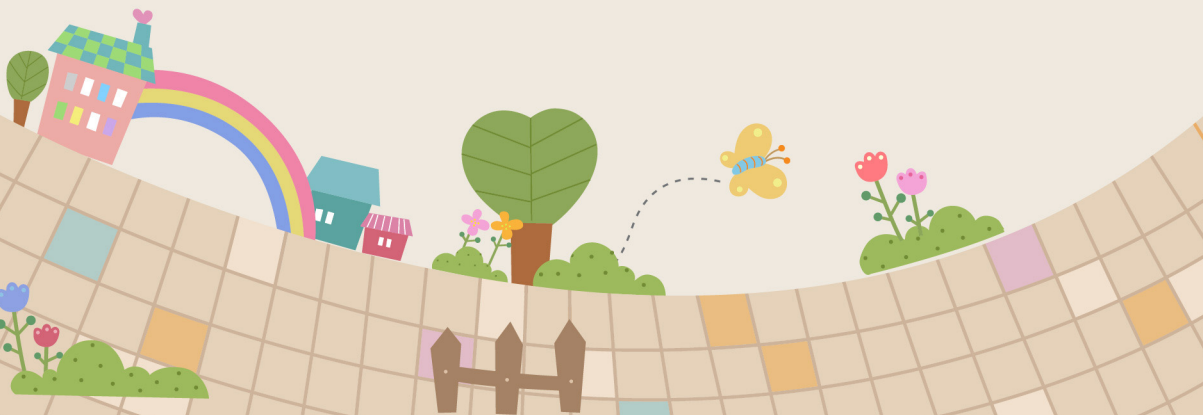




Ⅲ.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이해하기

1.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과정
3.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의사소통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원리 이해하기



①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훈육의 개념

훈육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영유아를 벌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대개 훈육을 문제행동이 나타났을 때 규칙과 벌로 행동을 통제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훈육의 개념은 영유아의 존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는 모순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훈육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아야 한다.

훈육의 목표는 영유아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영유아로 키워내자는 것이고, 영유아의 삶에서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을 훈육이라 본다. 이는 곧 영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한 자기훈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영유아의 자기통제를 통한 자기 훈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A 행동을 하는 것보다 B 행동을 하는 것이 왜 나은지를 영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이 있든 없든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영유아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이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즉 관계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아와 유아의 발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와 유아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아야 한다. 유아는 자율성, 주도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통제를 통한 자기 훈육의 방법이 적절할 수 있지만 영아는 보다 안전한 환경과 수용적인 태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문제행동이 보여지는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유아는 대그룹활동을 진행할 때 많이 나타나지만 영아의 경우는 개별적인 욕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일상이 진행되어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아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발달을 이루면서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서서히 가지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훈육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권리가 존중되는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 속에서 영유아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자기훈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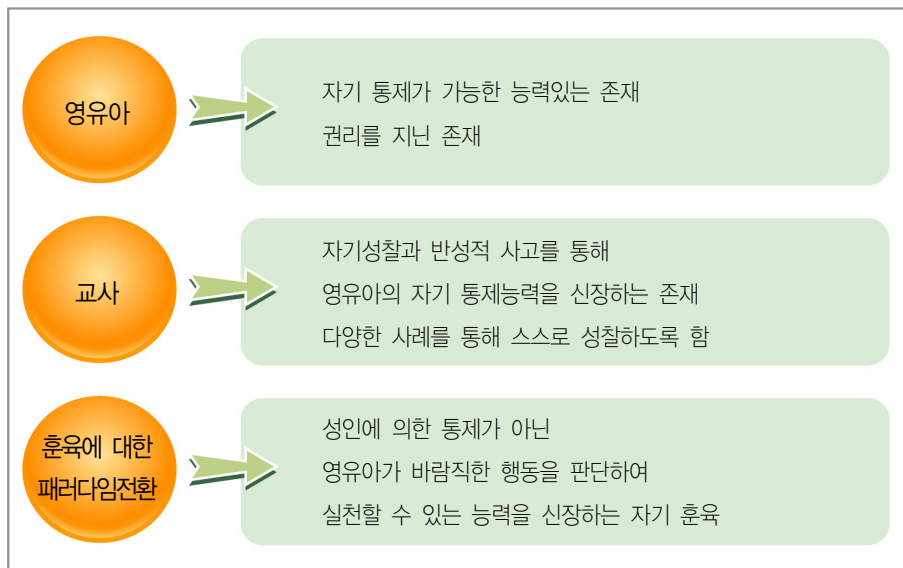


그림 3 훈육의 전제





2)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 사례를 통해 훈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⁴⁾



사례 1

멀티교수자료를 활용한 안전교육시간(만5세반)

앉은키가 작아 맨 앞줄에 앉아 안전교육을 시청하던 철이는 무릎을 꿇거나 엉덩이를 들어 움직여서 다른 유아들의 시청을 방해했다.

- 교사: 철이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봐주세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불편하잖아요. 바르게 앉으세요

철이는 계속 같은 자세를 반복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시청을 방해했다.

- 교사: 철이는 선생님이 3번이나 바른 자세를 하자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네.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철이는 맨 뒤에 가서 앉아야겠다.

철이를 친구들과 간격을 두어 뒤에 앉아 시청하도록 했다.

- 교사가 철이를 친구들과 분리하여 맨 뒤로 보낸 훈육 방법은 바람직한가?

교사는 철이 행동의 결과만을 보았거나 다른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의 결과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기는 하였지만 철이도 활동에 흥미를 보여 더 잘 보고 싶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단정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속단은 피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와 대형을 달리 계획해볼 수 있다. 너무 과밀한 공간은 유아를 힘들게 하고, 모두 같은 눈높이인 경우 뒤에 앉거나 체격이 작은 유아는 잘 안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가이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어린이집에서의 훈육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재조명」.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 2

영이가 같은 반 또래를 때리거나 꼬집어서 처음에는 교사가 이야기로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다. 약속을 하고 다시 놀이를 시작하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영이가 다시 친구들을 꼬집거나 때려서 울린다. 몇 번씩 교사와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교사가 이야기를 하며 아이 손바닥을 살살 두 번 때리며 “나쁜 손, 나쁜 손”하고 이야기를 한다.

- 교사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 듣지 않아 살살 두 번 때리는 것은 정당한 훈육방법인가?

강도(횟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영유아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성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에도 영유아는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 이러한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교사의 행동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교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영유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가 재판관이 된 듯 문제를 분석하여 들려주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상황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전에 빨리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합리화되어질 수 없다.



사례 3

자유선택놀이시간 친구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다 철이가 놀잇감으로 친구를 때렸다. 철이에게 높은 목소리-화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 화난 목소리도 훈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사의 그러한 행동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영유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감정이 우선시 된 경우이





다. 영유아의 행동 결과로 인해 교사의 감정이 상하고 이를 표출한 것이다.

교사는 ‘왜’ 화가 났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훈육 시 자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영유아를 위해 훈육을 해야 하고, 영유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오래 지속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과 짧은 시간 갑자기 치솟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교사와 영유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2)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 우리는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행동수정을 위한 교사의 강압적인 통제, 단시간의 변화를 꾀하는 훈육의 개념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삶 속에서의 지속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발적인 의사결정 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기조절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훈육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부정적인 훈육과 긍정적인 훈육⁵⁾

부정적인 훈육	→	긍정적인 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허용 한다 • 영유아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게 한다 • 규칙이나 제한, 기대가 없다 • 단기적으로 해결하려한다 • 대안적인 방법으로 벌을 사용 한다 • 행동 결과에 초점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기대, 규칙, 제한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 분명하고 일관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 영유아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간다 • 영유아와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다 • 영유아에게 예의, 비폭력, 공감, 자존감을 갖게 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돕는 것이다

5) 오선영. (2015).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전문요원 양성교육자료집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과 긍정적인 훈육」.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과정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은 교사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일상생활 안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 설정하기’부터 시작되고, 영유아의 삶 속에서 훈육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 분석하기’를 하게 되며,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하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과의 연계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하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훈육의 과정

1) 장기적 목표 설정하기

단순히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기보다는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장기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래와 같은 장기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 교사가 상기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 목표



- 자아 존중감 높이기
- 스스로 자기통제력 높이기
- 사회적 규범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자율성 키우기
- 상호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 키우기

2) 상황분석하기

(1) 영유아의 마음읽기

교사는 교실 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을 영유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 마음읽기 예시

- 친구가 내 놀잇감을 만져 속상한 상황
→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는 게 싫었구나.”
- 아침 등원시간에 엄마랑 헤어져서 화가 난 상황
→ “엄마랑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화가 났구나.”
- 친구가 놀이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상황
→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놀잇감을 너도 가지고 놀고 싶구나.”

(2) 행동 파악하기

영유아의 발달 수준(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동일 연령의 또래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이라고 지적되는 행동 중에서도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행동의 결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이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문제행동이라고 지적되는 행동 중 발달 상 정상적인 행동⁶⁾

- 신체적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행동
 - 엮지르기
 - 소변실수
 - 부딪히기
- 정서적·언어적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행동
 - 울기
 - 감정폭발
- 사회적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행동
 - 나누지 못함
 - 기다리지 못함
- 인지적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행동
 - 거짓말하기 / 속이기
 - 자기중심적인 행동

(3) 원인 파악하기

영유아의 긍정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그것에 초점을 두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황을 분석함에 따라 행동의 원인은 다양해질 수 있다.

문제행동의 원인은 개별적인 영유아가 지닌 원인(충족되지 못한 욕구, 기질, 성숙의 문제)부터 문제행동이 생기게 된 상황, 맥락, 가정내 환경, 문화 등 다양하다.

아래의 그림은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가지만 고려하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영유아 개인부터 영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 문화까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6) 이희영. (2006). 아동생활지도. 서울: 21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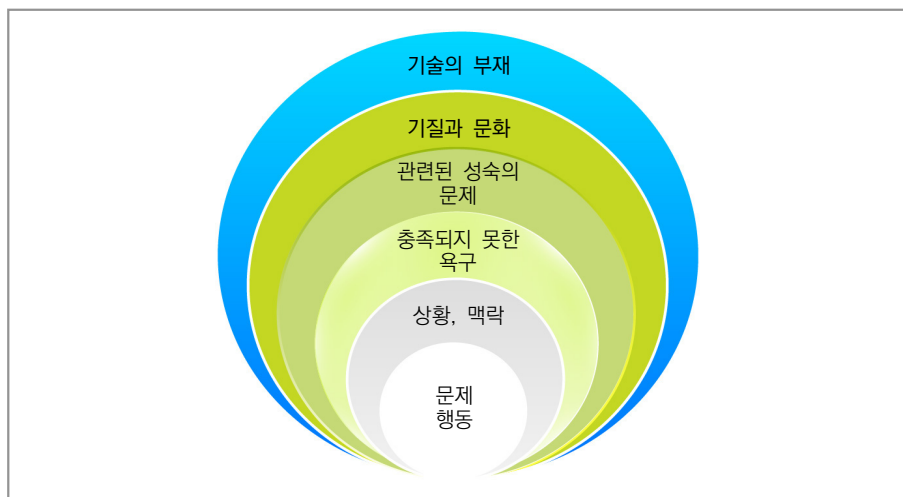


그림 5 원인분석 모형의 복잡성⁷⁾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경청을 통해 상황에 대한 영유아의 이해를 알아보며,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린이집 밖에서의 영유아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4) 교사의 기대 파악하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영유아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교사의 태도는 영유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교사의 표정이나 몸짓 또는 목소리의 억양 등은 종종 말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영유아에게 전달할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는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영유아를 과잉 통제하게 되고, 이러한 과잉통제는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인 우리는 영유아에 대해 부적절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보자.

- 나는 영유아의 능력에 대해 믿음이 없다.

7) 이희영. (2006). 아동생활지도. 서울: 21세기사.





- 나는 영유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더 편하다.
- 나는 영유아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중심적 사고의 단계에 있는 영유아에게 다른 친구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이기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사의 부적절한 기대로 나타난 교사의 상호작용의 예시

- 만 3세 유아가 놀이하던 놀잇감을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상황
→ “00이는 형이지? 그것도 못하면 아기 반으로 가야돼요.”
- 만 4세 유아가 옷을 옷걸이에 걸기 힘들어하는 상황
→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쉬운데.....”
- 만 3세 유아가 혼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 무서워 하는 상황
→ “뭐가 무섭다고 그래? 다른 친구들도 다 하잖아.”

교사는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영유아의 능력에 대해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차도 존중하기 때문에 또래 간에 비교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부적절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파악한 후 교사의 기대를 영유아의 능력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3)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하기

(1) 따뜻함 제공하기

교사는 영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끔 교사는 영유아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따뜻함을 제공하려 노력해볼 수 있다.

- 배우기에 적합한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 영유아 발달단계에 대해 이해하기





- 영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 영유아의 입장에서 상황 이해하기
- 감정적으로 안정감 주기

교사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따뜻함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의사소통을 통해 영유아와 함께 대안 찾기

문제 상황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이전에 문제 상황을 분석할 때에는 누구의 문제이냐에 따라 훈육의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

표 3 문제 상황의 주체에 따른 훈육방식의 차이⁸⁾

성인의 문제	영유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전달법'으로 표현 - 교사 기대의 수정 - 교육과정 수정 - 잠깐 물러나서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기 - 예상되는 문제행동 결과 알려주기 - 사회적 기술 지도 - 충족되지 못한 요구 돕기
성인과 영유아의 함께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 William Kreidler의 갈등 해결 4단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문기) 무엇이 문제인가? 2단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해결책 마련 3단계: 최선의 해결책 선택 4단계: 실행 	

현재의 문제 행동을 대신할 다른 긍정적 사회적 기술을 배우도록 돕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지하기 어렵다.

8) 이희영. (2006). 아동생활지도. 서울: 21세기사.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의 힘을 사용하기보다 힘을 철회하고 영유아의 요구에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려 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상정하여 교사가 힘(권력)을 행사하여 영유아를 통제하려 할 것이지만, 관계 상정을 수평적으로 하게 된다면 교사가 힘을 행사하기 보다 영유아의 요구, 의견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영유아에게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권리, 성공할 권리와 실패할 권리, 공정하게 가르침을 받을 권리, 개인적 문제,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훈육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게는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는 영유아의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때 훈육의 방법이 개별 영유아의 욕구, 당시 상황 및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의 원인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훈육방법의 가치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문제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영유아 자신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키워나가고 타인에 의해 강요된 규칙보다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구성된 도덕적 규칙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영아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아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잘 수용하고 이를 교사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가 대안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모델링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영유아와 함께 대안을 찾는 의사소통 예시

“00은 어떻게 하고 싶니?”

“친구한테 ‘나도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

“친구 기분이 어떨까?”

“00이도 화가 났고, △△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선생님도 00랑 △△와 같이 할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모를 수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자.”





(3) 긍정적인계선 제공하기

문제 해결 시 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존중을 얻으려면 교사는 적절한 한계선을 결정해야 하고, 이때 영유아를 참여시켜 통제의 이유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 영유아는 보통 왜 제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제한을 더 쉽게 받아들이므로 제한을 한다면 영유아에게 왜 어떤 행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영유아들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상과 벌로 그 행동을 강화하면 영유아들은 교사가 주는 보상과 벌에 의존하게 되어 습관화될 수 있고 영유아 내면의 자발적인 힘은 기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유아에게 행동의 한계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영유아에게 제시되는 선택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원하지 않는 보기를 주고 그 중 선택하게 하거나 교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요구사항, 한 가지는 비현실적인 것을 제시하여 영유아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이나 책임감이 없는 자유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긍정적인계선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의 제한 가능한 선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계선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필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영유아 스스로 행동의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발달에 필수적이다.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인계선 예시

“싫을 때에는 소리 지르지 않고 싫다고 말해보자.”

“아무리 속상해도 친구가 만든 걸 부수면 안 돼. 속상한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 속상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00야,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어. 조금 쉬었다가 기분이 좀 나아지면 해볼까?”

“00야,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자. 타는 곳으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친구들과 부딪힐 수 있어.”





(4) 기다려주기 / 주의 깊게 관찰하기

영유아의 극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행동의 변화가 있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에게 시간을 주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 또한 관찰된 내용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시 자료로 활용된다.

4) 협력하기

(1) 가정과의 연계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훈육의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원인을 파악할 때에도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생활에 대해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외부전문가와 협력하기

교사는 개별화된 보육과정만으로 영유아의 요구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가 등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도움을 의뢰할 때에는 영유아의 생활을 관찰하여 얻은 기록물을 토대로 한다면 영유아를 이해하는데 전문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부모,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표 4 | 훈육의 과정 및 내용

장기적 목표 설정하기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단기적 목표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유아가 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및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상황 분석하기	영유아의 마음읽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히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영유아의 관점에서 우선 생각해 보고 교사 스스로도 부적절한 기대치가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행동 파악하기	
	원인 파악하기	
	교사의 기대 파악하기	
영유아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하기	따뜻함 제공하기	훈육은 교사와 영유아가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와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지만 영아는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의 결과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안을 찾고 어떻게 행동할지 영유아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대안 모색하기	
	긍정한계선 제공하기	
	기다려주기 모니터링하기	
협력하기	가정과의 연계	긍정적 훈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와 협력하기	





③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의사소통

1) 기본은 존중하는 것

영유아의 행동을 다룰 때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게 된다. 비꼬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보다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잘못을 꾸짖으려 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2) 긍정적인 의사소통

(1) 나-전달법(I-message)

교사가 영유아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가 야기되었는지에 대해 영유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전달법’이 유용하다.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비난 없이 이야기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교사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

-
- 유아의 행동: ~하면
 - 교사의 느낌: ~라고 느낀다.
 - 유아의 행동의 결과: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울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OO가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에는 교사의 지시내용을 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전달하여 영유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것이다.

(2) 반영적 경청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유용하며, 종종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영유아가 문제행동으로 교사나 또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상호작용의





시작은 반영적 경청이다.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화제를 바꾸지 않고 영유아의 마음을 인정하고 반영해주는 것이 영유아의 저항을 줄이고 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반영적 경청의 예시

“바깥놀이를 빨리 나가고 싶었을 텐데 밥을 다 먹지 못해 마음이 급했구나.”

“친구를 때리고 심을 만큼 화가 많이 났었구나.”

“(영아) 철수도 영이가 가지고 노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구나.”

(3) 격려하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이 아닌 경우에는 영유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성인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나는 네가 똑똑하고, 예쁘고, 유능해서 널 인정해”라고 말하지 않고 “넌 너이기에 중요하고 사랑스러워”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가 한 좋은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개인이 성취에 대해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격려는 반영적 경청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4) 공감하기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영유아가 표현하는 정서를 인정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성인은 가끔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든다. 성인들은 이러한 감정을 정상적인 것에서 이탈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돕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죄책감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하며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공감해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해준다는 느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감해주는 의사소통 예시

상황: 낮잠에서 깬 영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 화가 난 이유를 알면 그 내용을 반응하여 감정을 읽어주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현하는 감정 자체를 읽어준다.

“○○가 더 자고 싶었구나”

“○○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선생님이 알겠어.” 라면 영아의 감정에 대해 공감해준다.

“○○야, 선생님이 안아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영아를 안아 달래주고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준다. 영아를 안아주며 달래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5)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 또한 중요하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와 일치해야 영유아가 그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영유아가 원할 때 그들을 향해 몸을 움직이며,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을 고개를 끄덕여준다. 이러한 행동은 영유아로 하여금 자신이 교사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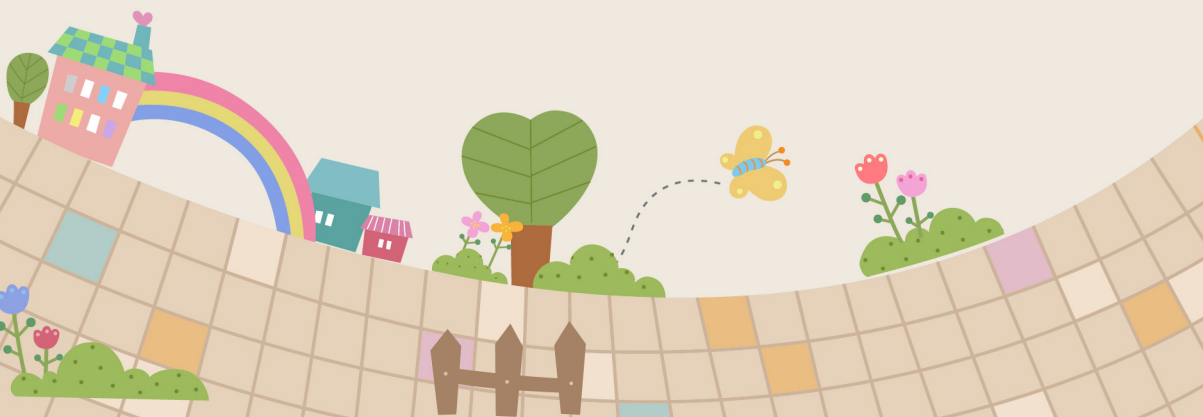
- 훈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까?
- 변화된 훈육의 패러다임에서는 영유아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점과도 부합되나요?
-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변화될 것이라 기대되는 당신의 모습과 영유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IV.

교사 내면의 힘 기르기

1. 교사의 스트레스 조절하기
2. 교사의 분노 조절하기
3. 교사의 우울 다루기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교사 내면의 힘 기르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뿐 아니라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소통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육교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의 스트레스 조절하기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잘 보육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이나 압박감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⁹⁾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 생활에 활력을 주고 업무수행능력을 증진시켜주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만성화되면 오히려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지 않도록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학회지, 14(1), 145-171.





2) 나의 스트레스 수준 체크하기¹⁰⁾

다음 문항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거나 생각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약간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1.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2.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3. 온 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신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4. 잠을 잘 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5.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비하를 많이 한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6.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7.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8. 매사에 집중이 잘 안되고 일(학습)의 능률이 떨어진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9. 식욕이 없어 잘 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10.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input type="radio"/>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radio"/> 약간 그렇다.	<input type="radio"/> 대체로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 **체크해 보세요.**

10~15점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16~20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1~25점	비교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므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6~30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신체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1점 이상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0) 강남구정신보건센터 www.smilegn.net





3) 스트레스 관리¹¹⁾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

- “스트레스 상황을 알고 신호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불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건을 겪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개인마다 다른 스트레스 경고 징후를 가지며, 주로 신체증상이나 감정의 변화로 나타난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모두 다 잘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스스로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로 구분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후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겠지만 대안이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초연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린 이집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시간을 잘 관리해요”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하여 먼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후 일을 하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11)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TIP!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법

1.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시간을 적어보세요.
2. 해야 할 일의 가치를 판단(중요하고 급한 일)하여 순위를 매겨보세요.

해야 할 일	필요한 시간	우선순위

3. 해야 할 일 가운데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세요.
4.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동시에 할 수 있는 일 찾기(예: 낮잠지도를 하면서 보육일지 작성하기)
 - 영유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찾기
 - 동료교사와 업무를 분담하기
 -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함께 진행하기





선배교사에게 듣는 스트레스 해소법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SNS이벤트」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난 이렇게 해소한다!」에 공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소하고 있어요.

일 때문일 땐, 일을 하는 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티타임, 음악 감상, 스트레칭 등으로 풀고 있고, 관계 때문일 땐,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카페를 찾아가서 책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날에는 산책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요소를 되돌아보면 나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인마음! 짬을 내어 여유로운 시간 가지기, 깊은 고뇌를 통한 자기통찰 등으로 해소해 보는 건 어떨까합니다♡

/ 라밍

나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교사에게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구해요.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쌤들은 업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아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교사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젤롱 a

친구나 동료와 함께 퇴근 후 맛있는 걸 먹으려가요. 수다도 떨고 맛있는 음식도 먹다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

/ wlswn0618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잠시 쉬고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근교로 맛 집을 다녀오거나 산에 올라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많다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도 좋지만 가까운 곳으로 잠시 떠나는 휴식시간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 정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교사들끼리 마니또 이벤트를 해서 응원이 되는 편지, 간식거리를 나누며 몰래몰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만들기 등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리고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또, 교직원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칭찬릴레이' 방법을 추천해요. 교사실 한 쪽 벽면에 칭찬릴레이 공간을 마련하여 내가 칭찬하고 싶거나 응원하고 싶은 교사에게 글 남기기! 칭찬/응원을 받은 교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릴레이형식으로 진행되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교직원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 배애라





2 교사의 분노 조절하기

1) 분노의 정의

분노란 자기의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행동이 방해받거나 격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당면해서 경험하게 되는 불쾌한 정서적·생리적 반응(홍경자, 2008)을 말한다.

어린이집 동료교사와의 관계 혹은 영유아와의 갈등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분노는 낯선 사람보다는 밀접한 관계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고 서로의 생활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분노 조절하기

(1) 자기 이해하기

스트레스나 분노는 현재의 문제에 원인이 있기 보다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거나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먼저 과거의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혹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이러한 경험과 마주해보자. 과거의 상처받은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 어린아이를 야단치고 강하게 살라고 내치지 않는다. 따뜻하게 안아 줌으로써
아이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 루이스 L. 헤이

(2) 분노상황 인식하기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우리 반 아이들은 너무 시끄럽다.
-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운다.
-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요구를 한다.
- 교사에게 와서 친구의 행동을 너무 많이 이른다.
- 놀이가 끝난 후에도 정리를 안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혹시 내가 우리 반 영유아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들이 이 연령의 영유아에게 당연히 나타나 는 일은 아닌지 점검해보자.

-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요”

동일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일 상대의 실수가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커지지만 진짜 실수라고 생각되면 분노가 덜 생기게 된다. 즉,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화가 나는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줄어 들 수 있다.

- “나를 화나게 한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자. 혹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난 화를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

(3) 분노 조절하기

- “화가 날 땐, 잠깐 멈춰서 흥분을 가라앉혀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멈추고 자신의 신체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분노호르몬은 잠시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거나, 자리에 앉아 낙서를 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화를 잠재운 뒤 영유아와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해 보자. 주위 상황을 잊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복식호흡 하는 법¹²⁾

- 먼저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몸의 긴장을 풁니다.
- 숨을 쉴 때 되도록 배만 오르내리도록 하며, 코를 통해 부드럽게 숨을 쉽니다.
- 들이 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편안하다', 속으로 말하면서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 하나에서 열까지 세고, 거꾸로 열에서 하나까지 센 후 눈을 뜨시면 됩니다.

-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요.”

만약 흥분상태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공간에 잠시 피해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집에서 계단 아래, 실외 놀이터, 교사 휴게실과 같은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잠시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상황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있게 될 휴가, 여행 등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좋아하는 글귀, 사진, 그림을 가까이에 두고 화가 날 때 꺼내 보거나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즐겁게 수많은 자극(하늘, 나무, 꽃, 차, 건물 등)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후에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표현하

12)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도 있다.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서 나오는 화도 있지만 상대에게 받은 화는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화나게 한 대상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동료 혹은 선배교사와의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감정대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지만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동료 혹은 선배교사의 동료교사의 공감을 통해 마음이 풀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IP!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면?

- 아침식사는 꼭 하세요.
- 어린이집에 여유롭게 출근하여 준비한다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은 음악과 함께 아침을 시작해요.





③ 교사의 우울 다루기

1) 우울증의 정의

실망이나 슬픔과 같은 단어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우울증은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낄 뿐 아니라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망가졌거나 손상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¹³⁾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만 나거나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한다.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피로가 쉽게 쌓여 몸이 개운치 않은 경우도 있다.

우울감을 가진 보육교사의 경우 사회적 위치와 주변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없는 척하거나 자신을 막고 차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이 우울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우울은 아동학대와 방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 Lara Honos-Webb. (2010). (우울증이 주는) 선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 (신민섭, 김성준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 나의 우울 수준 체크하기(벡 우울척도: Beck Depressin Inventory)¹⁴⁾

다음 문항들에 해당하는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최근 1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안에 기입해 주세요. 하나도 빠지 말고 선택하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 느낀다.
- () 4. 0)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질문지의 결과가 반드시 우울증의 진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의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4)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3) 교사의 우울감 다루기

-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부정적인 기분도 바뀌게 될 것이다. “난 나쁜 교사야.”,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분도 나빠진다. 반대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도 좋아진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충분히 좋은 교사야.”, “나는 우리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스스로 열등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당연히 허점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도 늘 실수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배우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일에서는 실수가 잦은 것이 당연하다.

- “하고 싶은 일을 활동으로 풀어내보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꼭 해야 할 일과 함께 하고 싶은 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일을 적어보자.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즐겁고 재미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시작해 보자. 날씨가 좋은 날 바깥놀이터에 나가서 햇볕을 쬐거나 산책을 하는 것, 맛있는 요리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해도 즐거운 일들을 활동으로 풀어내 보자.

- “잘한 일은 칭찬하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실에만 있고 싶은데도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하여 억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그걸로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자신에게 “잘했어. 장해!” 이렇게 말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동료교사와 일과를 돌아보며 잘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해보고, 칭찬을 해 보자.





- “큰일은 잘게 쪼개서 조금씩 하자”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보자. 만약 어린이집에서 맡은 업무가 많아 힘이 든데 자료실 정리 업무를 추가로 맡아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매일 조금씩 구역을 나누어 정리를 해보자. 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넘을 수 없는 산처럼 까마득하게 생각되는 일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나누어 도전해 보자.

- “우울한 기분을 풀 수 있는 음식이나 차를 먹어보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면 초콜릿, 매운 음식, 바나나와 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로즈마리, 캐모마일, 코코아, 대추차와 같은 차를 마셔보자. 우울했던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먼저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약물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주변의 가까운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에게 전화하면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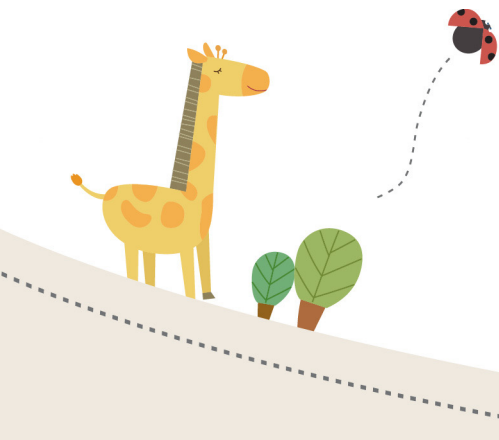
A decorative illustration in the bottom right corner featuring stylized green trees and flowers. One tree has a red flower, and another has a purple flower. The background is a light pinkish-beige gradient.



가까운 정신보건센터에 전화·방문하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간단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번호	구	기관명	전화	주소
1	강남구	강남구정신보건센터	02-2226-0344	일원9길 38 형일빌딩 3층
2	강동구	강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471-3223	성내로 45(성내동 541-2) 강동구보건소 1층
3	강북구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985-0222	삼양로 19길 154 강북구보건소본소 3층
4	강서구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600-5926	공향대로 561 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5	관악구	관악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879-4911	관악로 145 관악구청별관 4층
6	광진구	광진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450-1895	중곡동 긴교로 110번지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7	구로구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861-2284	구로중앙로 28길 35-2 보성빌딩 5층
8	금천구	금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3281-9314	시흥대로 123길 11 5층(독산1동 주민센터 건물)
9	노원구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116-4591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10	도봉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900-5783	방학로3길 117 도봉구보건소 1층
11	동대문구	동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963-1621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12	동작구	동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588-1455	남부순환로 2025 동작노인건강증진센터 3층
13	마포구	마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3272-4937	성산로 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14	서대문구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337-2165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우리들 4층
15	서초구	서초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529-1581	바우외길 184 바우외복지문화회관 2층
16	성동구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298-1080	금호로 114 성동구보건소본소 3층
17	성북구	성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969-9700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6층
18	송파구	송파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421-5871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19	양천구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061-8881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 1층
20	영등포구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670-4793	당산로 124 영등포보건소 내 지하1층
21	용산구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703-7121	백범로 329 용산구보건소본소 2층
22	은평구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353-2801	연천초교길 15 불광보건소 3층
23	종로구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745-0199	성균관로 15길 10
24	중구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236-6606	서소문로 6길 16 중립종합복지센터 3층
25	종랑구	종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3422-3804	면목로 238 종랑구민회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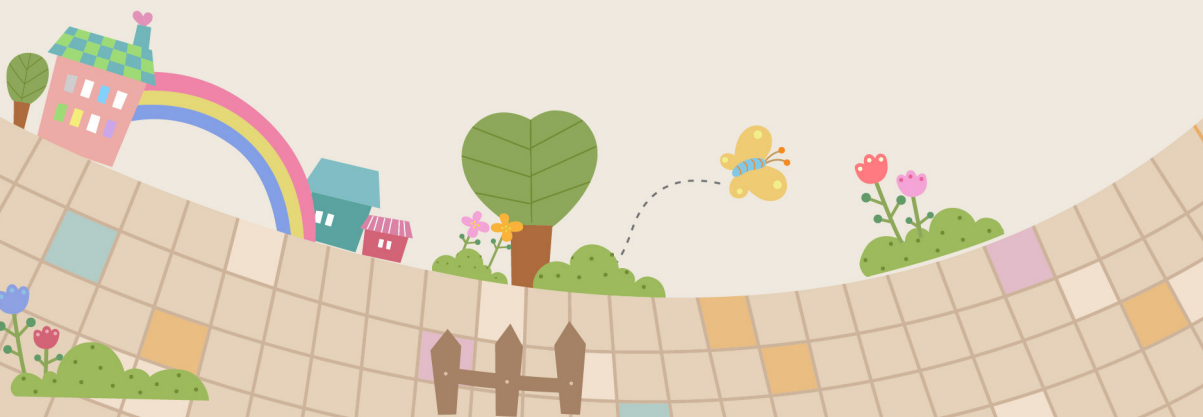




V.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1. 부모와 신뢰 만들기
2. 부모와 장기적 목표 공유
3. 이해를 위한 자료 준비
4.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5. 효과적으로 부모와 소통하기
6. 부모와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방법
7.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에서
가정과 협력하기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어린이집에서의 적응행동에 대해 평소 부모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바람직한 영유아 지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 어떻게 지내는지, 어린이집이라는 집단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지 궁금해 하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지 불안해한다. 교사 역시 영유아의 가족관계나 가정에서의 특별한 변화 등 역동성을 잘 알아야 한다. 영유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모와 교사가 나누고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부모와 신뢰 만들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믿을 만하다, 좋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게 된다. 부모에게 영향을 주어 영유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

- 부모는 자기 아이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주 표현해 준다.
- 아이의 성향이나 세세한 행동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아이 상태에 적합한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부모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 부모의 선호나 욕구를 파악하여 도움을 준다.
-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사이어야 한다.
- 작은 메모 등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소통을 자주 한다.
-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교실과 자신을 개방한다.





② 부모와 장기적 목표 공유

교사는 부모와 영유아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 원하는지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목표는 책임감, 정직함, 원만한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과 존중하는 능력 등이 될 수 있다.

교사와 부모가 함께 아이에게 기대하는 목표를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상시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이해를 위한 자료 준비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교사가 준비한 노고에 대해 고마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교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영유아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영유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관찰기록은 적절한 생활지도와 보육활동을 실행할 수 있으며 부모를 이해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관찰과 기록하는 방법에는 일화 기록, 평정척도, 행동목록법, 사건 표집법, 시간 표집법 등이 있으며 기록 자체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교사의 통찰과 의견이 더 중요하다.

관찰 기록 외에도 영유아가 활동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 동영상, 의미 있는 활동 결과물도 참고할 수 있다. (예 : 신체 발달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에는 실외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대한 동영상,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영유아의 그림 등)

④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 부모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경청은 소통의 시작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표현이기에 부모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비언어적 메시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반응(미소, 끄덕거림, 눈 맞춤, 바짝 다가앉기 등)으로 전달한다.
-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배경을 명확한 어휘로 설명하여 확인시켜 준다.
 - 부모가 요점이 없이 길게 말하고 있다면 교사는 부모가 원하는 감정, 기대, 욕구가 무엇인지를 통찰하여 다시 정리해서 말해준다.
-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준과 직업 등에 맞추어 대화의 수준을 이끌어 나가고, 어떤 일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비록 교사와 의견이 같지 않다 하여도 부모의 의견을 또 다른 의견으로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 한 번에 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너무 많은 질문은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개방적인 질문으로 한 번에 한가지 이상은 묻지 않는다.
 -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로 바꾸어 질문한다. “왜요?”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라고 묻는 것이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들린다.
- 부모와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 보장이 기본이다.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영유아의 이름이나 사례를 거론하여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곤란한 내용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부모가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한다.
 -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는군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유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화의 맥을 잘 유지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5 효과적으로 부모와 소통하기

- 교 사 : 철이 어머니, 철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산만한 거 같아요.
 철이어머니 : 어머, 그래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 교 사 :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 참았는데... 여기서는 자유놀이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뛰어 다니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도 왔다갔다 집중하지 않아요. 요즘 들어 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 철이어머니 : 이상하다. 집에선 공룡책 하나로 꼼짝하지 않고 한 시간도 집중해서 보는 걸요? 밥 먹으라 해도 밥도 안 먹어요.
- 교 사 :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는 밥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옆에 앉아서 지키면 바닥에 누워서 흘린 밥풀로 장난을 치고... 혹시 요즘은 ADHD(주의력결핍장애)가 많다던데... 병원을 가보시면 어떨까요?
- 철이어머니 : 네에? 집에서는 멀쩡한 아이인데 괜 왜 선생님 앞에서만 그러죠? 선생님이 지도를 더 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교 사 : ???

무엇이 문제일까?

- 산만하다?~ 단정 지어 말하지 않는다.
 - 영유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단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왜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 “어머니, 만 4세 유아들은 보통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15~ 20분 정도 집중을 해요. 근데 철이는 처음엔 5분 정도 함께 앉아 있다가 5분이 지나면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간혹 어떤 친구와 마음이 맞아 둘이 놀기도 하는데, 보통은 집단에서 혼자 떨어져 놀이를 한답니다. 철이가 주로 가 있는 곳은 쌓기놀이 영역인데요. 거기서 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타워 블록을 가지고 놀죠. 잠깐 그렇게 놀다가 미술 영역이나 과학 영역도 돌아다니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단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쳐다보다가 재미있겠다 싶으면 다시 합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모여 있기보다 각 영역을 돌아다니며 노는 걸 좋아합니다.”
 - ‘산만하다’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 교사가 자세한 관찰에 의해 알아내고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선





생님이 우리 아이를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챙기며 신경 쓴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

- 마찬가지로 ‘공격적이다’, ‘욕심이 많다’ 등 판단하는 말보다는 교사가 관찰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 부모를 존중하며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 부모는 자녀의 작은 잘못도 자신 탓이라는 생각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 먼저, 부모가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 “아, 집에선 또 그런 모습도 있군요.”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자녀를 잘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의 욕구를 이해한다.

-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아이가 잘 자라기를 정말 원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본능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와 협력해야 한다.
- 때로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현재의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협력이 어렵다 해도 “어머니는 철이가 어떻게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태도로 부모의 욕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

■ 전문가로서의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여 부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가 예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 중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했더니 아주 많이 좋아진 걸 봤어요.” 또는 “요즘 이런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 많이 생겼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발달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TIP! 부모로부터 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

- 장시간을 관찰하고 지켜본 누적된 자료를 제시한다.
- 간단한 평정척도나 체크리스트로 평균적인 유아들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 등·하원에 잠시 만나서 하는 면담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정한다.
- 조용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든다.

⑥ 부모와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방법

부모와 생긴 갈등 구조에서 그 상황을 누가 문제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기법이 다르다. 즉 교사인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인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해서 항의하는 상황이라면 ‘반영적 경청’이 적절하다.

반대로 상대방인 부모는 별생각이 없는데 교사인 나는 이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 된다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 이야기인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둘 다 양보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가 비슷하다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한다.



TIP! 문제의 소유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

- 상대방의 문제 : 반영적 경청
- 자신의 문제 : 나 전달법
- 양쪽의 욕구가 모두 비슷할 때 :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1) 부모(상대방)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 반영적 경청

- **부모** : 우리 아이는 매번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상처가 생겨 와서 정말 속상하다. 선생님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 **교사** : 눈치 없이 매번 친구를 건드린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싸우는데 상처는 애만 생긴다. 큰 상처도 아니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닐까?
- 교사는 예민한 부모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의 상처로 인한 속상한 마음이나 무관심하다 생각하는 교사에 대한 서운함에는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모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이다.
- 부모 : 선생님. 우리 영이는 왜 맨날 애들한테 맞아요? 어제는 손등이 까져 왔는데 오늘은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만 그래요? 여기 아이들이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
 - 교사 : 어머,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있으니 많이 답답하셨죠? 다른 곳도 아니고 이번엔 얼굴에까지 상처가 났으니 저도 뭣날까 봐 정말 걱정이네요.
 - 부모 : 아니, 제가 몇 번 꺾꽂 참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 교사 : 그랬군요.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또 자주 이런 일이 있으니 제가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서운하셨죠? 저도 하느라 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손을 못 썼어요.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 부모 : 애들이 자라며 다치기도 하겠지만 좀 심하다 싶어 제가 몇 번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씀 드린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2) 교사(자신)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 나 전달법

- **교사** : 매일 11시에 등원하는 영이는 놀 친구가 없어 나에게만 붙어있고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해 안타깝다. 조금 일찍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 **부모** : 늦게 퇴근하여 아이도 늦은 시간 잠들다 보니 늦잠 잘 때가 많다. 별생각 없이 일어나는 대로 준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
- 부모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점에 초점 맞춰(너-메세지) 전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전한다.
- “보통 어린이집에 9시경이면 친구들이 거의 다 도착해서 놀이가 시작돼요. 영이가 오는 11시경이면 친구들 놀이 그룹이 다 만들어져서 끼리끼리 정말 재미있게 놀거든요. 영이는 등원해서 딱히 같이 놀 친구들을 찾지 못해 제 옆에만 있어요. ‘선생님, 저 누구하고 놀아요? 뭐해요?’ 하고 물을 땐 정말 보기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 있죠?”
- 상황, 그에 따른 결과, 나의 느낌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여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양쪽 모두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 **상황** : 아침에 가장 일찍 와서 밤에 가장 늦게 집에 가는 만 2세 철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를 밀치고 때리는 일이 많아 다른 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 **교사** : 부모에게 주말이나 평일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달래 주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나 주말에 동화책 읽어주기, 함께 나들이하기 등을 권유하였다. 부모는 말로는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것 같다.
- **부모** : 직장 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과 피곤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자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것저것 요구한다. 솔직히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말에 아이와 어떻게 지냈냐는 교사의 질문이 부담스럽다.





- 교사가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 방법도 알려주었지만 진전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입장도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부모가 변화되길 바라지만 부모는 교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경우 교사와 부모 모두가 만족한 결론에 도달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주며 반영적 경청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나-전달법으로 알려준다.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해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사 : 철이 어머니, 요즘 매일 퇴근이 늦고 집안일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철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달라고 한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실테고... **(반영적 경청)**

부모 : 아니,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 힘드네요.

교사 : 그러시죠. 저도 철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건데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어 다시 걱정입니다. **(나 전달법)**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철이를 위해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가 먼저 제안해서 여기 종이에 써볼게요.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결책 제안)**

부모 : 네, 저도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교사 :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5분은 아이와 눈 맞추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눈다.

-1주일에 3번은 퇴근 후 동화책 1권을 읽어준다.

-주말에는 30분 정도 아이와 바깥놀이를 함께 한다.

-1주일에 1번은 가장 늦게 하원하지 않는다.

... ..

부모 : 주말 30분 바깥놀이는 좋은 것 같아요. 나들이는 아니어도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저도 노력해 볼게요. 주 3회는 자신이 없고 한 두 번은 동화책 읽어주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알지만 1주일에 1번도 일찍 오기 힘들 거 같아요... **(하나씩 점검하기)** 근데 이거 다 한 번에 못할 것 같아요.





교사 : 네, 모두 다 한꺼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정하기로 해요.
하실 수 있는 것 중 이번 주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목록에서 1가지 정하고 실천하기)

- 교사, 부모 모두가 서로 소통하여 각자 입장을 이해한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만들 수 있다.



TIP! 기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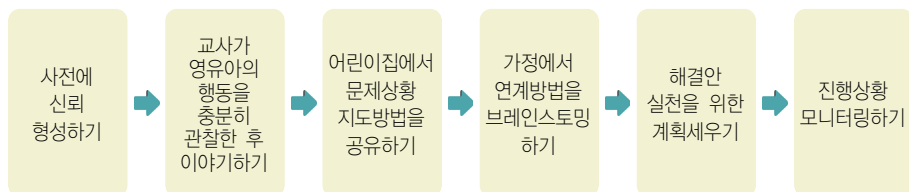
-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교실 개방하기
평소 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부모 위원이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함께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때 어린이집의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학부모에게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부모참여, 참관 등의 열린어린이집 실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생활을 자주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면 자녀를 객관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를 돕는 가정통신문, 부모교육
영유아의 발달상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때 교사와 함께 긍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7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에서 가정과 협력하기¹⁵⁾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가정과의 협력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 **상황** : 놀이 시간에 친구의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만져 또래와 갈등 상황이 잦은 만 4세 철이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행동으로 또래와 다툼이 생긴다.
- **교사** : 다 같이 놀이하는 활동 시간에 모두들 집중하는데 철이의 행동으로 다툼이 일어나 주의도 흐트러진다. 친구들이 모두 듣는데 철이가 자주 지적되어 친구들한테 혼나는 아이로 낙인될까봐 걱정스럽다. 철이를 관찰하니 다른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으나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주변 친구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1)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한 후 이야기하기

- 교사가 영유아의 문제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행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할 때 영유아의 입장과 교사가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문제 상황 소거라는 단기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관찰은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부모를 이해시키는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 교사가 문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부모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15) 2권 친구를 재미로 건드리기(p.40)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함.





- 교사가 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철이 어머님, 요즘 철이가 친구들과 다툼이 종종 일어나 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한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요. 언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 문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누구의 편이나 입장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철이가 앞에 앉은 영이의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영이는 머리카락을 몇 번 만지지 말라고 하다가 철이를 밀쳐 다툼이 일어났어요.

2) 어린이집에서 문제상황 지도방법을 함께 공유하기

- 교사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부모에게 전달한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지도 전략을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지도를 일관성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는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지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철이에게 물어보니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도 없이 영이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만졌더라고요. 철이는 영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잘 모르고, 영이가 화를 내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의 마음을 알려주고, 친구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물어보라고 알려줬답니다. 그일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협력하여 해결해가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어요. 집에서는 철이가 어떤가요?

3) 가정에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가정의 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눈다.
-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해결 방법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제안할 수 있다.
- 가정 연계 해결의 브레인스토밍
 - 영유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기
 - 부모는 불편한 감정에 대하여 나 전달법(I- message)으로 표현하기





-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 안내하기
-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영유아에게 설명해 주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 읽기

4) 해결안 실천을 위한 계획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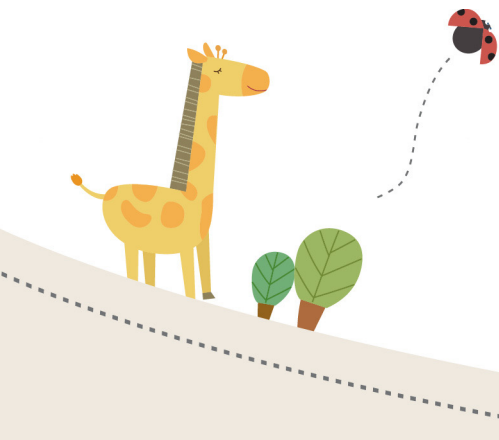
- 교사와 부모는 함께 생각해 본 다양한 해결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본다.

어머님과 제가 철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철이의 행동에 대해 불편한 감정 표현하기, 가정에서 허용되었으나 어린이집에서 허용되지 않는 장난을 단호하게 알려주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감정 표현이 잘 나타난 그림책 함께 보기가 있겠네요.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실천해보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5) 진행상황 모니터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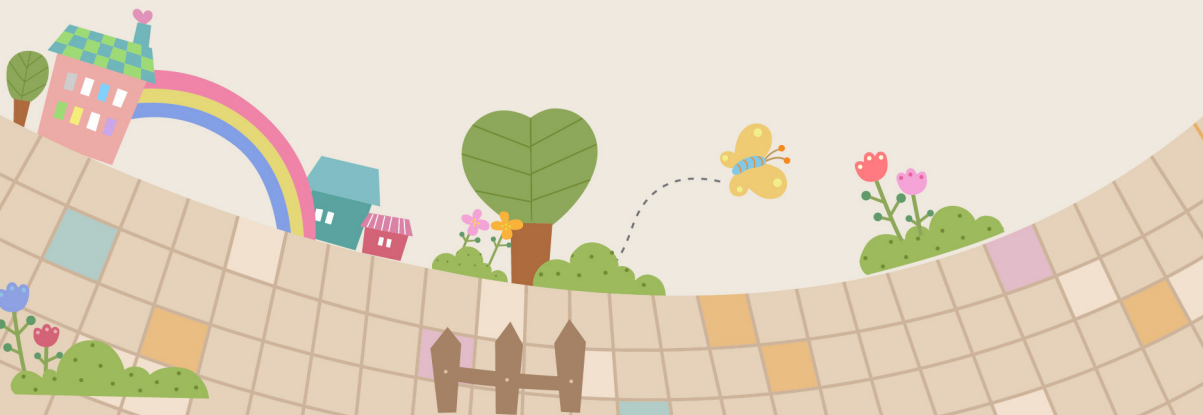
- 일상적으로도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해결방안을 실천하여 보고 진행사항을 점검해보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정해 이야기를 나눈다.
- 모니터링 내용
 - 영유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사항
 -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변화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행동
- 가정에서 서로 실천해보기로 한 해결방안이 잘 진행되었는지, 진행상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보완하거나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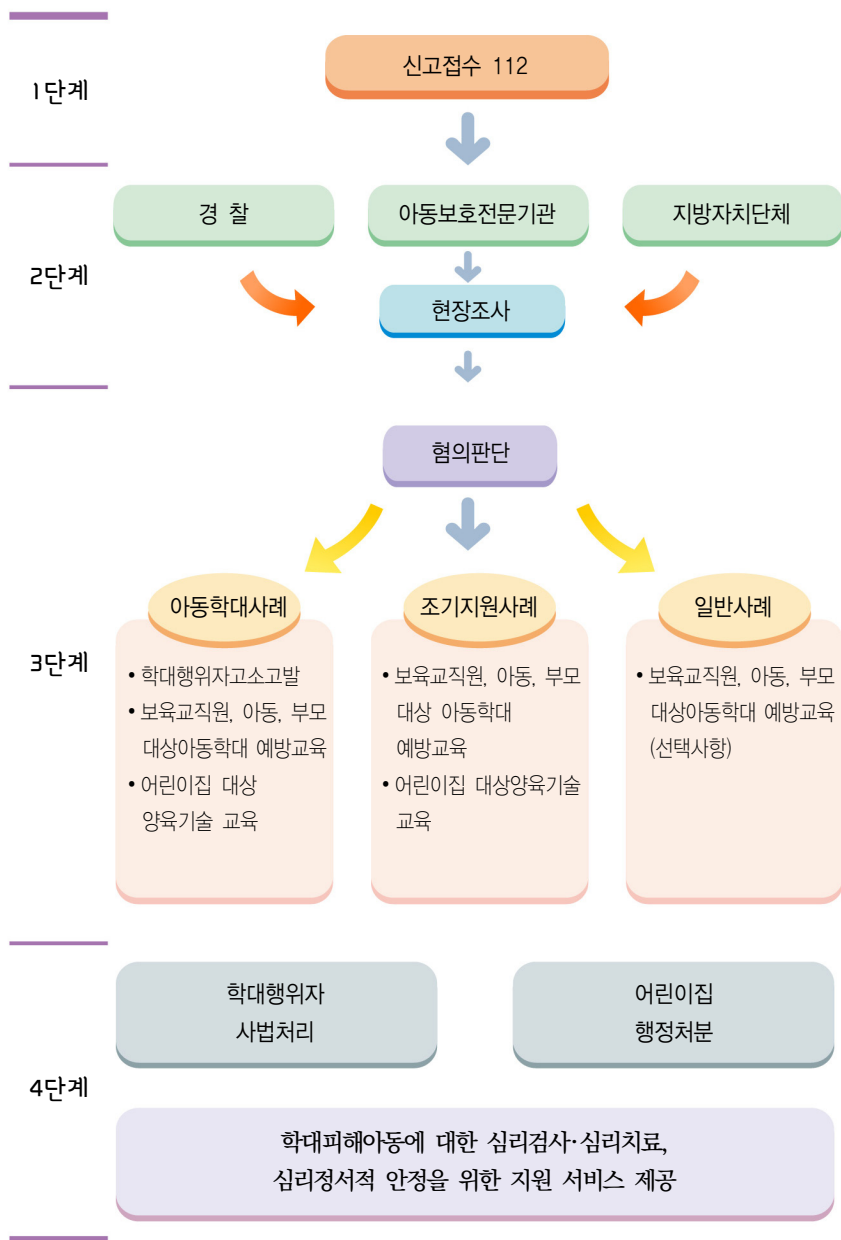
부 록

1.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 절차
2. 아동학대 유형
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 절차





1)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접수

- 아동학대신고전화 112(경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안전신고센터), 1366(여성 긴급전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접수내용 보고 및 현장조사 동행 요청

2) 현장조사

- 신고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 현장조사 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증거자료(학대사실 확인서, 증거 사진, CCTV 영상, 현장조사 녹화, 녹취 등)을 보존 및 확보
- ** 현장조사 과정에 취득한 증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의 비밀누설 금지 등에 의거 당사자에 한한 정보 외에는 제공 금지

3) 사례판단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를 판정(단)하고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아동학대사례는 학대의 위험 수준에 따라 원 가정 보호, 격리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속하는 경우 사법처리 지원 등 필요 조치를 진행합니다.
- 조기 지원 사례 및 일반 사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면, 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 아동학대 정황이 확증되었을 경우

** 조გი지원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아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절한 훈육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사례(판단불가)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 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판단 결과, 피해아동 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법처리(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5조, 제4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을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자격취소 보조금 중단 평가인증(참여)취소 폐쇄조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행위자 처벌 공범자 처벌





②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행위의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를 묶음, 벽에 밀어 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을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2)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정서학대 행위의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방임

방임(Neglect)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방임 행위의 예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무단 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 의료적 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성 학대

성 학대(Sexu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 학대 행위의 예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선생님!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당 지자체에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왔다. 지자체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 부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 아동(2세)은 입으로 친구들과 교사를 물곤 했다고 한다. 그날도 아동이 보육교사의 허벅지를 물어 멍이 들었는데, 또 친구의 손가락을 물기에 **원장이 아동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입술을 '톡톡' 건드렸다는 것**. 아동이 엄마는 **“아동의 입술이 두 배로 부어있었는데 살짝 친 정도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며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원장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 아동을 진료했던 의사는 아동의 입술이 부어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상처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단, 의사가 X-선 촬영을 권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했고, 별도의 처방이나 처치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례는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되었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 변경 처분을 내렸다.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아동(만 1세)에 대한 학대의심내용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아동(만 1세)이 어린이집에 다닌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 **등에 전체적으로 멍이 들고 실핏줄이 터진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엄마가 놀라서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보니,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이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아동의 상흔이 혼자서 놀다가 다쳤다는 어린이집 측의 해명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로 종사하고 있던 아동의 누나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재차 물으니 “아동이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뒤로 누워버려서 기도가 막힐까 봐 등을 두 대 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동의 엄마와 누나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건 정황에 대한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 아동 등에 난 **상흔을 봤을 때 수차례 아동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대응과 어린이집 폐쇄 조치까지 취해지길 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할구청 관계공무원·피해아동·피해아동의 보호자·학대행위자·아동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했다.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CCTV를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머리를 때렸어.”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발로 찼어.” “점심 늦게 먹는다고 나 혼자 두고 선생님이 친구들만 데리고 바깥놀이를 갔다 왔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000반 아이들은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엄마들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함께 CCTV를 확인했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들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조사와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한 교사가 평소 보육태도가 거친 편이긴 하지만,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으며, 아동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항의 전화가 있어 교사들에게 주의를 준적은 있다고 했다. 000반 13명의 아동과 학부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에게서 학대사실이 확인되었다. CCTV에서도 교사가 아동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뛰어오는 아동(6세)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2회 관찰되었고, 식사 중인 아동(6세)에게 상체가 뒤로 밀릴 정도로 책상을 밀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아동(6세)의 산만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2회에 걸쳐 40여 분간 타임아웃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감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정서)로 판정하였다. 학대행위자인 교사는 해임되었고, 해당 어린이집에는 벌금과 3개월간의 보조금 지급 중지 처벌이 내려졌다. 피해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퇴원했다



“선생님, 장롱 안은 너무 무서워요.”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롱이나 화장실에 감금**시키거나 잦은 체벌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원장님이 우는 아동(2세)을 장롱 속에 가두었다가 한참 만에 데리고 나왔는데, 아동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이 또 다른 아동(3세)의 뺨을 때려서 얼굴에 손자국이 생겼고, 다른 아동(1세)의 머리를 벽으로 밀친 적도 있어요.” “영아반 아동에게 젖병을 물리고 방치해두어 구토를 유발하기도 했고, 많이 먹으면 똥을 많이 싸니까 조금씩만 먹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아동을 장롱에 가두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원장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교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처음엔 전·현직교사들의 증언 내용을 부인하던 원장은 현장조사가 계속되어지자 학대 행위를 부분적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해당사례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정서)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해당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가 이루어졌다.





“학대 사례 판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진술.”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의 역살을 잡고 머리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옆 반 선생님이 해줬어요.”
 O호(만1세) 엄마의 신고, “저희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며 사과한 담임교사의 진술을 녹취해서 갖고 있어요.” O모(만 2세) 아빠의 신고. 두 명의 신고자가 학대행위자로 지목한 이는 OO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이다. O호와 O모에 대한 학대 사실을 검증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같은 반에 재원 중인 O옥(만 1세)이와 O조(만 1세)에 대해서도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O조의 엄마는 “학대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럴 분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전 △△반 교사였던 O옥이 엄마는 그 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원장님이 O호의 역살을 잡고 끌어 앉히면서 손바닥이 올라가며 때리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원장님이 아이들을 자주 때리고 혼내요.**” 라고 진술했다. 현직 OO반 담임교사는 2차 현장조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3차 현장조사 시에는 “O옥이 엄마의 증언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덧붙여 □□□가 유아들의 배변 훈련 과정에서 훈육이 아닌 감정적 대응을 한다고 증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는 전 △△반 교사의 구체적 정황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직 □□반 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O호에 대해서는 신체학대를, O모·O옥·O조에 대해서는 일반 사례로 판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되었고 원장에게는 자격 취소 조치를 취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세요.”

O석이 엄마, 아빠는 아동이(만2세)의 발달 속도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느린 것 같아 걱정이 다. 그리고 최근 아동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게 **강압적인 식사지도와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신고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위해 가정 상담을 진행하던 날, 아동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겨줄 것을 요구하는 표현을 했고, 아빠가 옷과 신발을 벗기려고 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장은 아동의 발달 속도가 느려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동의 담임교사가 보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불안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주변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원장이 아동을 자주 보육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식사 지도를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원장이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한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보육 태도를 일관했다는 현장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했으며 원장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을 그만 둔 아동은 상담을 받고 있다.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폭력.”

장애 아동의 부모는 늘 불안하다. O규(만 6세) 엄마는 이웃인 O규 친구의 엄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O규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장애전담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을 애 목구멍까지 밀어 넣고 등짝도 때리고 그러더라고….” “이런 말 전하게 돼서 미안한데…” “엄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참 나도 마음이 착잡해.” 피해아동의 부모와 목격자는 신고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지만, 원장과 장애전담교사(학대행위자)는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원장은 학대행위자가 평소에 장애아동을 지도할 때 “먹어요.” “씹어요.” 같은 경어를 쓰고, 조금 조금 이야기하지, 언성을 높이는 경우는 없다며 장애전담교사를 두둔했다. 학대행위자는 “O규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씹지 않고 볼에만 모아둬요. 그래서 씹을 수 있게 손으로 볼을 잡아준 거예요. 입 밖으로 음식을 자꾸 밀어내니까 손가락으로 음식물을 안에 넣어준 것뿐이지 억지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때린 게 아니라, 볼 만지는 걸 싫어하는 O규가 자꾸 몸을 뒤로 젖혀서 앞으로 밀어준 거예요.”라며 학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로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의 입에 음식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강제로 음식을 더 넣고, 아동의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손가락을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의 학대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이 사례를 신체 및 정서 학대로 판정하였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담당교사의 해임을 조치했다.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장애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다.



“선생님, 이불로 덮지 마세요.”

어린이집 원장이 만1세의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빈방에 가둔 채 방치하고, 울음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이불을 덮어씌운다는 내용으로 신고 되었다. 현장조사 시 주변인들에 따르면 “아이가 울면 달래야 하는데, 달래지 않고 계속 자지러지게 울도록 방치했어요.” “아동이 울면, 다른 아동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고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원장님은 우는 아동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아직 영아인데도 억지로 김치를 먹도록 강요하고, 어리니까 음식을 흘릴 수도 있는데, 원장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큰소리로 혼냈어요.” “원장님의 방에 한 번 다녀온 아동들은 원장님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등의 진술이 이루어졌다.

원장은 아동들이 심하게 우는 경우 격리 보호를 할 때가 있지만, 이불을 뒤집어씌우거나 고함을 지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원장이 아동들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학대(정서 학대)로 판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다.





“강제로 싫어하는 반찬을 먹였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1시간 50분 동안 음식을 먹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뺨을 때려서 빨갈게 부여울랐어요. 그 날이 금요일이라서 주말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항의하러 갔더니, 원장님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딸아이의 집을 챙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O(2세)이 엄마의 흥분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학대행위의심자인 원장은 현장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O이는 목욕할 때 얼굴에 물이 묻으면 우는 등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지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평소 편식이 심해서 담임교사 대신 제가 식사 지도를 종종 해왔어요. 그날도 깻잎을 먹지 않기에 편식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한 것인데, 다O이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 머리카락을 잡아서 엉덩이를 세 차례 손바닥으로 쳤어요. 그렇지만, 뺨은 결코 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실수로 다O이 몸에 멍이 생겨 제가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다O이 어머니가 주장하는 대로 뺨을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언쟁이 오고갔지요.” 주변인들의 진술도 비슷했다.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원장(및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식사지도 시 강제적으로 진행한 점 등의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아동학대(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원장은 징역형을 받았으며, 피해아동은 어린이 집을 옮겼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배가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했어요.” O후(만2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낮잠 시간인 오후 1시경 아동들을 재운 후 교사가 3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때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O후가 선생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20분 이상 교실을 돌다가 소변을 지리고 말았다. 이후 귀가시간에 교사는 **손으로 민호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린 후 벽에 세워두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현장조사에서 아이들만 재운 후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 묻자 담당 교사는 사건 당일 낮잠시간에 어린이집 원장의 호출이 있어서 아동들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후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면서 그 날 이외에는 한 번도 아동들만 둔 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엉덩이 체벌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제가 민호의 엉덩이를 때렸는지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CCTV를 보고서야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장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방임)로 판정하였고,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했으며 해당 교사는 해임되었다.





참고문헌

강남구청신보건센터 www.smilegn.net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 학회지, 14(1), 145-171.

권민균, 문혁준, 권희경 외. (2006).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김신혜. (2006). **‘훈육’의 교육적 의미의 재해석**. 열린교육연구, 14(2), 123-138.

보건복지가족부, 세이브더칠드런. (2012). **보육교사용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과천: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돌봄시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집**. 세종: 보건복지부.

서영숙, 서혜성, 김진숙. (2009). **보육교사를 위한 아동청소년 연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2012). **좋은 교사되기 핸드북**. 서울: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4). **아동학대를 넘어 아동권리존중으로**.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훈육가이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어린이집에서의 훈육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재조명」**.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선영. (2015).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전문요원 양성교육자료집 「인권 친화적인 보육환경과 긍정적인 훈육」**.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미화 외. (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서울: 보건복지부.

이희영. (2006). **아동생활지도**. 서울: 21세기사.

전점구. (2012). **화, 참을 수 없다면 똑똑하게**. 파주: 21세기북스.

정운경, 박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 (2005). **영아의 타인의 주의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협응적 공동주의와의 관계: 선별적 응시모방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65-180.

한국보육진흥원. (2013). **아동학대자 교육명령제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2014). **부모의 사랑, 자녀의 행복**.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홍경자. (2008). **의사소통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Hay Louise L. (2012). **치유(박정길 역)**. 서울: 나들목.
- Janusz Korcak. (2002). **야누스 코르차크의 아이들(노역희 역)**. 서울: 양철북.
- Marjorie V. F., & Debby F. (2006). **아동생활지도-구성주의적 접근-(이희영, 허승희 공역)**. 서울: 21세기사(원저 1994년 출판).
- Rolf Merkle. (2010). **왜 나는 우울한 걸까(장혜경 역)**. 서울: 생각의 날개.
- Lara Honos-Webb. (2010). **(우울증이 주는) 선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신민섭, 김성준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avage, T. V. (1999). *Teaching self-control through management and discipline(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Steffen Saifer. (2001). **유능한 유아교사의 학급운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임승렬역)**. 서울: 다음세대.



■ 기획·총괄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성은희 (서울시보육담당관 과장)
김창현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배동원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주무관)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보육전문요원)
이한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 집필진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수정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안지혜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양영아 (숙명어린이집 원장)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상국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감수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김낙홍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오선영 (한국인권재단 국장)

[1권] 선생님-아이-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발 행: 2015년 6월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화: 02-772-9814~8

인쇄처: 디자인 나무

ISBN 979-11-85917-04-7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